

## ▶ 달러/원 주간 전망

### • 단기 고점 인식 생길까..최소 4조원대 외인 배당몫 부담

서울, 4월1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관세정책 관련 단기 리스크 해소 여부와 외인 배당 역송금 수급 등에 초점을 맞추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10-1450원이다.

지난 주 1500원을 가시권에 뒀던 달러/원 환율이 주 후반 하방압력을 키우더니 주요 지지선을 뚫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촉발한 조정에도 지켜졌던 120일 이동평균선이 포진해있는 주요 지지선 1430원대는 전방위적인 달러 약세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다. 이에 환율은 2주 연속 하락 마감해 굳건했던 상승 추세에 균열이 생기면서 단기 추가 조정 여력도 확보했다.

미국과 중국 간 거친 맞대응 관세 보복조치가 있었지만, 당분간 이들 싸움은 속도 조절에 나설 듯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일부 컴퓨터, 전자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책에 예외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등 단기적으로 최악의 국면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산 투매가 촉발한 약달러 현상이 잦아들면서 글로벌 달러가 단기 바닥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전반적인 위험회피 심리 회복은 단기 원화 강세를 이끌 수는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 안정은 필수지만 말이다.

미국 관세정책 따라 시장의 갈지자 행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에 관한 품목별 관세 적용 결과에 원화는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유가증권시장에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선 주구장창 매도세로 일관해오는 외인 투자자 행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코스피시장에서 외인 순매도 규모는 8조원대다. 한편, 이번 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경기 하방압력 확대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불안 등이 맞서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주 1500원대를 위협하던 환율이 주 후반 1420원대로 급강하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높아지긴 했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 분석과 6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통화정책 카드를 빠르게 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금통위에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돼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시장의 최우선 변수가 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 발언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연준 인사들이 발언했듯이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 시장 안정 의지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중국 1분기 GDP, 3월 수출입,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그리고 미국도 이와 관련한 핵심 경제지표 결과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4월 관세정책 발표 이전 지표로서 이에 대한 시장 관심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와 위안, 그리고 외인 주식 매매 동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지만, 환율 레벨이 갑자기 크게 떨어진데 따른 수급 반응에도 민감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배당지급일이 몰려 있고, 이에 따른 외인 배당 역송금 관련한 달러 수요가 시장 변수가 될 수 있다. 로이터가 추산한 주요 상장사의 외인 배당액은 최소 4.6조원이다.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과 맞물린 일시적인 수급 변수에 환율이 수시로 변동성을 키우겠지만, 당장 1450원대 위로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다면 달러/원 단기 박스권은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강한 환율 상승 추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이슈

### • 美 자산 매도세, 미중 무역전쟁, ECB 금리 결정 등

#### 1. 시장의 급격한 변동 속도

트럼프의 관세와 그에 따른 반전은 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을 높였고, 과거 위기에서 주식, 채권, 통화의 절대적인 움직임이 더 컸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빠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변동성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변동폭의 크기가 아니라 변동 속도다. 4월의 시장 변동성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강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시간은 훨씬 짧았다.

현재 미국 자산이 매도세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국채, 주식, 달러는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의 급성기 시장이 약 24거래일 동안 지속되었다. 2008년에는 약 78일 동안 지속되었다. 이번에는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 U.S. stocks surge and plunge with Trump's tariff headlines



Source: LSEG Data, Reuters

## 2. 미중 무역 전쟁

도널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캠페인은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한 '해방의 날' 관세 부과 90일 유예 조치에서 중국을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부과된 관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45%까지 인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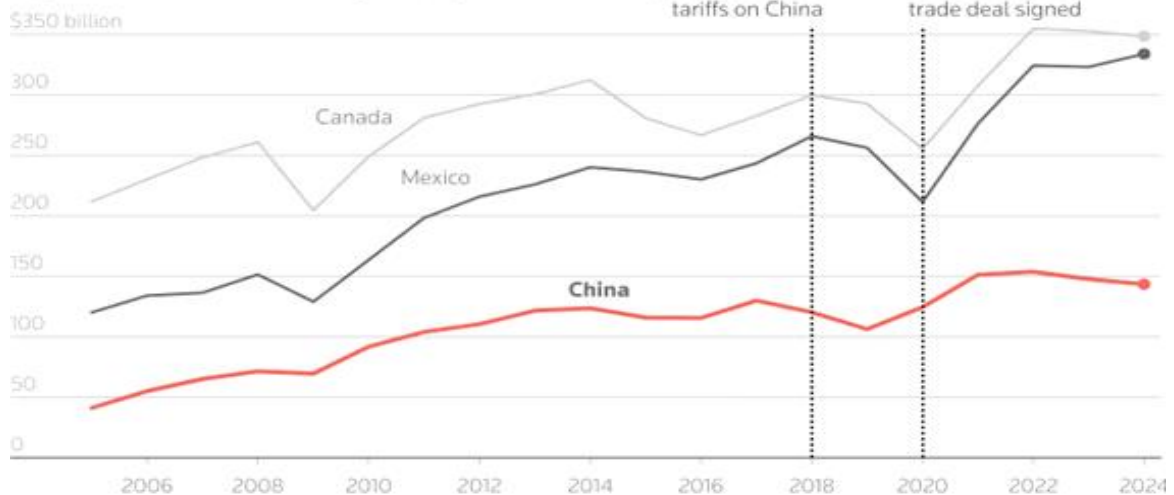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렸으며, 앞으로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은 무역이 거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론상의 숫자로 느껴진다.

무역, 공장 생산 및 소매 판매 수치를 포함한 중국 데이터가 며칠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 China is the third largest buyer of US goods

China purchased nearly \$150 billion in U.S. goods last year. The two countries are now locked in a tit-for-tat trade dispute.

#### Top destinations for U.S. exports, by value



Note: The US-China Phase 1 deal required China to increase purchases of U.S. exports by \$200 billion over a two-year period, but Beijing, citing the COVID-19 pandemic, failed to meet that requirement.

Source: ITC Trademap

Prinz Magtulis and Kripa Jayaram | REUTERS, April 8, 2025

## 3. ECB 금리 결정

관세 혼란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지는 목요일 유럽중앙은행 회의에서 초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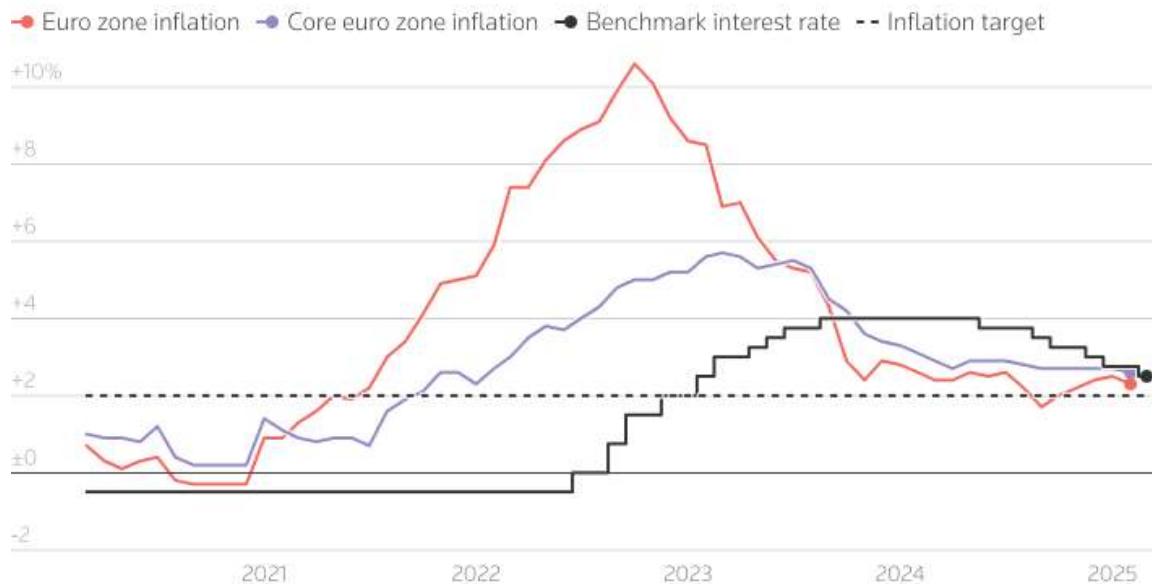
트레이더들은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25%로 25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3월에 비하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의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도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유럽 경제가 직면한 위협을 말해준다.

4월11일부터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바르샤바에서 만나 트럼프의 조치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 ECB to meet for the first time with Trump's tariffs on the background

The economic bloc is weighing potential counter-tariffs against the U.S. tariffs on imported goods. Duties, if imposed, threaten to derail progress in lowering inflation and push up prices.



Note: Euro zone inflation is measured by a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across all members of the economic bloc.

Source: LSEG Datastream

Prinz Magtulis | REUTERS, April 8, 2025

#### 4. 미국 소비자 지표

경제 및 관세 불확실성이 미국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4월16일에 발표되는 월간 미국 소매판매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일부 관세를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소매 판매 수치는 경제 불안이 이미 소비자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2월에는 소비자들이 재량 지출을 억제하면서 소폭 반등에 그쳤고 소비자 신뢰 지표는 타격을 받았다. 이번 주에는 기업 실적도 발표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이익 경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이며,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관세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US retail sales likely hit a 26-month high in March, poll says

Economists polled by Reuters project U.S. retail sales to have increased 1.3% in March from the previous month.



Sources: LSEG Datastream, Reuters polling  
Prinz Magtulis | REUTERS, April 8, 2025

### 5. 신흥시장의 위기

트럼프의 관세 시장 패배는 신흥 시장의 모든 종류의 지각판을 바꾸어 놓았다. 수익률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채권과 차입 비용에 불균형적인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는 거대 경제 대국인 중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여파의 중심에 서 있는 반면, 남미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 있다.

새로운 무역 세계 질서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의 전망을 헤쳐나가야 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목요일은 신흥국 중앙은행에게 중요한 날이다. 터키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집트 정책 입안자들이 변동성 확대를 배경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해 올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하폭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 원문기사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달러·금리 변동성 확대로 주식 우려 심화..소매판매, 주요 기업실적 주목

뉴욕, 4월14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 이후 나타난 달러 약세와 국채 매도가 주식 변동성을 가중시킨 가운데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전망이다.  
S&P500 지수( [.SPX](#) )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주간 상승했다. 하지만 이 지수는 여전히 2월 19일 사상 최고치 대비 약 13%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격화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에 관한 우려가 여전하고, 트럼프가 가장 심각한 관세 중 일부만 유예하면서 다른 곳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자산은 타격을 입었고, 달러화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급락했으며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벤치마크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다.  
제이니 몽고메리 스콧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크 루스키니는 투자자들이 바뀌는 관세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지 고민하면서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루스키니는 시장이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면서 "따라서 투자자들은 대체로 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큰 베팅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불안감을 나타내는 옵션 기반 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 [.VIX](#) )는 역사적 중앙값의 2배가 넘는 약 40을 기록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자산군, 특히 달러와 국채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금요일 통화 바스켓에 대한 달러화 지수는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우드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월터 토드는 이전의 많은 리스크 오프 이벤트에서 달러와 국채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했지만, 지난주에는 주식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세계의 기축 통화이자 무위험 자산인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를 넘어섰는데, 투자자들은 이 수치가 주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는 동시에 채권이 주식에 비해 투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금요일 메모에서 "국채가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위험자산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주에 발표되는 분기별 미국 기업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골드만 삭스 [GS.N](#), 존슨 앤 존슨 [JNJ.N](#), 넷플릭스 [NFLX.O](#)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울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브라이언트 반크롱카이트는 변화하는 관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미국 소매판매 지표가 나올 예정이지만, 트럼프의 4월 2일 관세 발표 이전의 기간에 관한 것이다.  
시장은 무역 전쟁의 전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고율 관세 부과를 유예한 국가들 사이에 진전이 있다는 증거를 기대할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도 관심을 끌 것이다.

씨티 전략가들은 메모에서 "중국 협상은 여전히 시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원문기사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USA-STOCKS/WEEKAHEAD (SCHEDULED COLUMN)

▶ 주간 세계 이슈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 4월14일(월)
- 특이 일정 없음
- 4월15일(화)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08:00)
  - 기획재정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11:30)
  - 한국은행: 2025년 2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국회 대정부질문 (14:00)
- 4월16일(수)
- 한국은행: 2025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 (06:00)
- 4월17일(목)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통방) (09:0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경제상황평가(2025.4월)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 (11:1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자문회의 (10:00)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10:00)
- 4월18일(금)
- 금융감독원: 2025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차관회의 (10:00)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춘계회의」참석 (12: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mailto: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4월14일		중국	수출 YY	3월	4.4%	2.3%
4월14일		중국	수입 YY	3월	-2.0%	-8.4%

4월 15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2월	0.2%	0.8%
4월 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4월	-12.40	-20.00
4월 15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3월	0.0%	0.4%
4월 15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3월	0.1%	0.1%
4월 16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4월		-1
4월 16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2월	0.8%	-3.5%
4월 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3월		-4.8%
4월 16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3월	4.1%	4.1%
4월 16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3월	5.6%	5.9%
4월 16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3월	4.2%	4.0%
4월 16일	11:00	중국	GDP YY	1분기	5.1%	5.4%
4월 16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EUR	2월		13.20B
4월 16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3월	0.6%	0.4%
4월 16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 11일 주간		292.3
4월 16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3월	1.4%	0.2%
4월 16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3월	-0.2%	0.7%
4월 16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4월	39	39
4월 17일	08:50	일본	수출 YY	3월	4.5%	11.4%
4월 17일	08:50	일본	수입 YY	3월	3.1%	-0.7%
4월 17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3월	1.450M	1.459M
4월 17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3월	1.420M	1.501M
4월 17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 7일 주간	226k	223k
4월 17일	08:30	일본	CPI	3월		-0.4%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 4월14일 (월)

- ⊙ 싱가포르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경제 관련 연설 (15일 오전 1시)
-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CFA 세인트루이스 지부에서 연설 (15일 오전 2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빌라노바 경영대에서 강연 (15일 오전 7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에모리대 주최 행사에서 연설 (15일 오전 8시40분)

### 4월15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2025년 4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오후 10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연설 (16일 오전 0시35분)

### 4월16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0시45분)
- ⊙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콜럼버스 메트로폴리탄 클럽 포럼에서 연설 (17일 오전 1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연설 (17일 오전 2시30분)
- ⊙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주최 행사에서 연설 (17일 오전 8시)

### 4월17일 (목)

- ⊙ 나카가와 준코 일본은행 정책위원 연설 (오전 10시30분)
- ⊙ ECB 금리 결정 (오후 9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나회견 (오후 9시45분)
-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앞두고 연설 (오후 11시)

### 4월18일 (금)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행사 참석 (19일 오전 0시)
- ⊙ 휴장국가: 미국, 홍콩,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해외전문가반응)-美 증시 매도세 재개.."불확실성 크다..대중 관세 파장 우려"

4월11일 (로이터) - 목요일 월스트리트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기로 한 지난 세션의 역사적 상승세에서 돌아서 고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새로운 관세가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에게 발효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한편 많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요일 S&P500 지수( [.SPX](#) )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 [.IXIC](#) )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지수는 목요일 각각 3.5%와 4.3% 하락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코멘트다.

◆ JJ 키나한, IG 북미 최고 경영자, 시카고 테이스티트레이드 사장

"중국과 미국이 조금씩 대치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적어도 지금은 있던 자리에 남겨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또 어제 많은 숏 스쿼드가 있었고 모멘텀이 저절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계속 상승하면서 그들은 숏 포지션을 커버해야 했고 동시에 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과했다."

"현재 관세 상황은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물음표를 남긴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미지수다. 중국은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매우 큰 무역 파트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 짐 캐롤, 밸류스트 락 프라이빗 웰스 수석 자산 고문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건 미친 짓이다. 최근의 침체 이후 많은 개인 고객들이 어드바이저와 이야기하면서 '이 폭락장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준의 불안감이다. 여러 면에서 트럼프 1.0과는 다른 상황이며,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느껴진다. 우리는 중국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나는 매일 우리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이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입은 고객들이다. 이러한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손실 중 일부는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다른 부분에서 일부 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어제 숏 스쿼드의 모든 징후가 있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사태가 진정되고 사람들이 이 게임의 가장 큰 플레이어가 중국이고 우리가 여전히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열기가 사그라들었다."

"우리는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양방향으로 격렬하게 움직이게 된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

◆ 마이클 브라운, 페퍼스톤 수석 리서치 전략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이후 상승세는 엄청나게 격렬하고 규모가 컸기 때문에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약간의 하락세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행복감으로 인해 다소 냉정한 시각이 조금씩 우세해지기 시작했다...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는 실제로 매우 충격적이다. 무역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90일 동안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이는 분명 (변동성) 매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아담 헤츠, 야누스 헨더슨 멀티에셋 글로벌 책임자

"우리는 여전히 10%라는 기본 관세, 자동차 관세, 공격적인 보복 관세, 중국 및 유럽과의 무역 전쟁식 확대 등 여전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시나리오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여전히 약세 전망과 일종의 경기 침체 전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매도세를 기본 케이스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몇 주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무질서한 매도세에서 질서 있는 매도세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아트 호건, B 라일리 웰스 수석 시장 전략가,

"전체 관세 수준은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여전히 높으며 오늘 아침에 추가 관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조금 바뀌었다. 따라서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불확실성과 중국에

대한 관세가 총 145%에 달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 협상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소식에 직면하여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쁜 소식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 마크 찬들러, 배녹번 글로벌포렉스 수석 시장 전략가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에는 진정한 냉각 요소가 있다."

"시장은 달러 롱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미국 금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려면 더 높은 프리미엄이 필요할 것이다."

◆ 사미어 사마나,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 글로벌 주식 및 실물 자산 책임자

"두 가지 이유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첫째, 어제는 큰 폭으로 상승한 날이었기 때문에 약세장 저점에서 매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매도할 기회를 찾고 있던 사람이라면 지금 매도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어제 팔았고 오늘도 팔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냥 돈을 들고 도망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90일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

"협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개월 후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할까?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단 옆으로 물러났다가 상황이 좀 더 정리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GLOBAL-MARKETS/VIEWS (UPDATE 2, QUOTES)